

작년 한강 상수원 '녹조경보' 0일... 올해도 차단 총력

〈미사대교~잠실철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올 여름 기온 전망 평년보다 높아 정체구역 중심 녹조 가능성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미사대교~잠실철교 구간에서 조류 농도를 측정해 결과 조류경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조류경보제 시행 결과 '관심' 단계인 1000세포/ml 이내를 유지해 조류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다만 잠실철교 지점은 조류 농도가 최대 985세포/ml로 검출돼 관심 경보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은 상수원보호구역(미사대교~잠실철교)과 친수구역(잠실대교~행주대교)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 수돗물을 공급



녹조 발생 모습.

/서울시

하는 상수원구역을, 서울시물순환정책과는 시민들이 수상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친수구역을 관리한다.

조류경보제는 물환경보전법 제21조에 따라 남조류 세포수를 2회 연속 측정해 단계별 기준치를 초과할 때 발령한다.

상수원구역에서는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이면 '관심', 1만세포/ml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ml 이상이면 '대발생' 경보를 발령한다.

지난해 한강 상수원구역에서는 조류 농도가 경보 발령 기준치를 밑돌았다.

2018년 지점별 남조류 세포수 최대 발생량을 보면 잠실철교 985세포/ml, 광진교 976세포/ml, 강동대교 633세포/ml, 미사대교 870세포/ml로 측정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기상청의 여름철 기후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 23.3~23.9도보다 높고, 강우량은 평년과 비슷하다”며 “한강녹조 발생에 가장 큰 결정인자인 상류댐 저수량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나 특정 기간 내 폭염이 지속되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정체구역을 중심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조류 발생 시기에 사전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취수원 주변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한다. 조류 경보가 발령되면 맛·냄새물질 검사주기를 주 1회에서 일 1회로 확대한다. 상수원에 남조류가 번식할 경우 조류 독소와 맛·냄새물질이 정수처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시는 “한강 녹조 발생에 따른 수질 피해 예방을 위해 조류경보제와 자체 맛·냄새물질 관리기준을 시행해 정수처리 시 조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창업청년 위해 '점포 반값임대'

DDP패션몰 3층매장 10곳 임대 면적 등 거쳐 9월부터 입점 계획

서울시가 반값등록금에 이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반값 임대점포를 내놨다.

서울시는 DDP패션몰 3층 매장 중 10개 점포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한다고 9일 밝혔다.

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50%인 월 99~164만원 수준이다. 임대보증금과 입점비는 없다.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는 30만원 정도다.

입주가 결정된 청년 창업자는 책정된 임대료를 납부하면 2년간 운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2년 후 계속 운영을 원할 경우 기존 상인과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 매장에 입점할 수 있다.

시는 청년 패션 스타트업에 판로 개척을 위한 바이어 수주회, 패션쇼 참가



DDP패션몰 건물 전경.

/서울시

우선권을 준다. DDP패션몰 상인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지원한다.

시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시제품 발표 면적 등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9월부터 입점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여성 영캐주얼 의류를 직접 제조하고 도매로 판매 가능한 1980~2000년생 미취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응모할 수

없다.

임대점포 희망자는 10~21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DDP패션몰 4층 공단 관리사무실을 방문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DDP패션몰은 서울시 땅인 동대문 주차장 터에 지난 2006년 지어졌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패션의 메카로 불리는 동대문에는 3만개 점포가 있지만 5000개(올해 4월 기준)가 공실인 상태다.

시는 향후 청년 창업지원 성과 등을 평가해 단계별로 반값 점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청년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DDP패션몰 청년 패션 스타트업 반값 임대료'를 통해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관행을 개선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 5일 건설 공사장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시

서울시, 국가안전대진단 평가 '최우수'

포상금 10억원 긴급시설에 투입키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등과 함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예방 활동이다.

시는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우려시설 1만9712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분야별 점검 결과와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도 추가로 공개해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5월 30일 제79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실적 평가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대진단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과 전북 2곳이다.

시는 포상금으로 받은 10억원을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2193개소와 정밀안전진단대상 21개소 등은 후속 조치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불법 대부업 피해 서울시에 신고하세요”

다산콜센터, 상담센터 등서 접수 위반업자 영입정지·등록취소 수사

#. 의류도매업자 A씨는 대부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와 위임장을 제공했고 대부업자가 매일 A씨의 현금카드를 일수금을 인출하는 방식이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쫓기대출(돌려막기)을 권유받았고,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결과 대출금은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서울시는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 내역서, 피해자 본인의 대출 내역, 휴대폰 녹취, 목격자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일대일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피

해분석 후 행정처분, 수사의뢰,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수사,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 시청서 '호국보훈 학술세미나'

서울시는 한국보훈학회와 1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다목적홀에서 '3·1운동 100주년 호국보훈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미나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이후 '3·1운동이 국내외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국가유공자와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최재성 서강대 교수, 양정훈 수원대 교수, 김재기 전남대 교수가 '3·1운동이 국내외 독립운동에 미친 영

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중부대 신은숙 교수의 '대학생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도 연구', 한상용 원광대 교수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제도 개선', 이강수 한성대 교수의 '전쟁군사박물관 협력망 구축을 통한 국민 호국보훈의식 함양에 관한 연구'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선종률 한국보훈학회장을 좌장으로 발표 연사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